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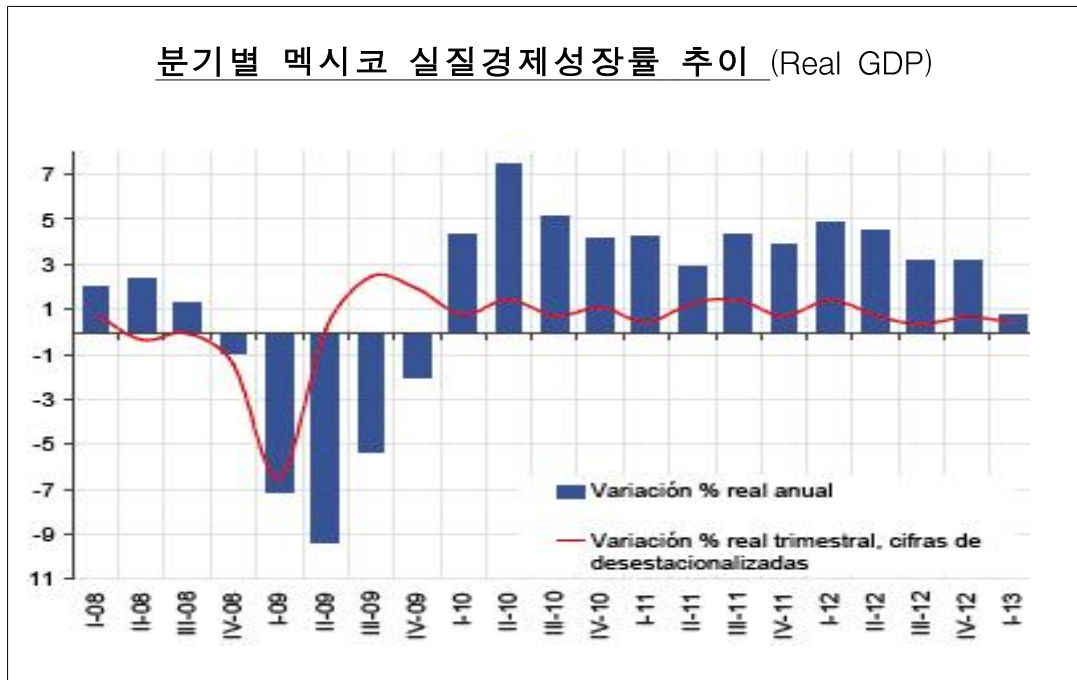
13. 1분기 멕시코 실질 경제성장률 0.8% 기록

(2013. 5. 21)

멕시코시티사무소

1. '13. 1분기 실적

- 멕시코 재무부(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)는 '13. 1분기 멕시코의 실질 경제성장률(Real GDP)을 0.8%라고 발표
 - 이는 전년 동기 성장률 4.6% 대비 약 3.8%p 하락한 수치임
 -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, 멕시코는 '10. 1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실현 중



2. 둔화요인 분석

- (근무일수 감소) 전년 동기 대비 '13. 1분기 실근무일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음

- '12년의 경우 윤년으로 멕시코의 대표적 휴일기간인 부활절기간 (Semana Santa)이 4월이었으나 '13년의 경우 3월에 위치
- (미국경기 여파) '12년 중반부터 지속되던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'12. 4분기에 주춤한 결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됨
 - 미국 실질경제성장률 : '12. 3분기 2.5%, '12. 4분기 0.4%
 - 멕시코의 높은 대미 경제의존도
 - 미국은 멕시코 수출의 77%(2,800억 달러) 및 수입의 49%(1,800억 달러) 차지
- (공공지출 감소) 멕시코 정부의 공공지출 예산 10% 감소로 인한 주정부의 대금지급 지연 등
 - '13. 1분기 건설산업의 경우 성장률 $\Delta 0.9\%$ 기록 및 근로자 4천명 해고 발생 등
- (기타) 산업생산성 저하 및 장기간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 등

3. 전 망

- '13. 1분기 멕시코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이나, 미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예상, Fitch의 멕시코 국가신용등급 상향(BBB→BBB+) 조정, 現 니에토 정부의 경제 개혁의지에 대한 긍정적 대외평가 등을 감안할 때 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